

저금리시대 가산금리로 수익 챙기는 암체 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예금금리 신속하게 내리고

신용등급 낮은 고객 상대 가계대출금리 올려

저금리시대 시중은행들의 금리 압제 및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예금금리는 신속하게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천천히 짚금 내리고 있어서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상대로 가계 대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계 신용대출 5월 취급분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외환, 한국씨티 은행은 전월보다 0.02%포인트에서 0.21%포인트까지 높았다. 한국씨티 은행이 6.54%에서 6.77%로 0.23%포인트 뛰었으며 부산은행과 산업은행은 4.81%에서 5.02%, 3.44%에서 3.65%로 각각 0.21%포인트, 대구은행이 5.29%에서 5.41%, 기업은행 4.14%에서 4.23%, 국민은

3.84%에서 3.92%, 외환은행 4.39%에서 4.45%, 신한은행 4.04%에서 4.09%, 수협은 5.16%에서 5.18%로 높였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수신금리 인하에는 발빠르게 보조를 맞췄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도 본격화됐다. KB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을 1.4%로 0.1%포인트 끌어내렸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예금과 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깎았다. 외환은행도 YES큰기쁨예금 상품의 1년형 금리를 종전 1.65%에서 1.40%로 내렸다.

이렇듯 시중은행의 무리한 금리 '역(逆)주행'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마다 재량 여지가 큰 가산금리를 조정해 전체 대출금리 하락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

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는 것으로 은행의 마진, 대출자 신용도,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금리인하에 따라 자체 기준금리가 0.07%포인트~0.14%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가산금리는 하나은행 0.5%포인트, 제주은행 0.43%포인트, 광주은행 0.18%포인트, 전북은행 0.13%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시중은행의 처사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기본금리는 낮춘 채 가산금리를 올리는 은행들의 꼼수가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화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영리를 챙기기 위한 하나의 '꼼수 영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은행별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

은행	4월	5월	금리차
경남	5.44	5.26	-0.18
광주	5.36	5.27	-0.09
국민	3.84	3.92	+0.08
기업	4.14	4.23	+0.09
농협	3.73	3.73	0
대구	5.29	5.41	+0.12
부산	4.81	5.02	+0.21
산업	3.44	3.65	+0.21
수협	5.16	5.18	+0.02
신한	4.04	4.09	+0.05
외환	4.39	4.45	+0.06
우리	4.07	4.01	-0.06
전북	5.03	4.86	-0.17
제주	4.49	4.38	-0.11
하나	4.98	4.51	-0.47
한국SC	4.63	4.60	-0.03
한국씨티	6.52	6.77	+0.23

(단위: %포인트)
(자료: 은행연합회)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3.93 (-50.48) 금리 (국고채 3년) 1.83%
- ▼ 코스닥 752.01 (-17.25) ▲ 환율 (USD) 1126.50원 (+3.50)

'긴축안 반대' 그리스 위기 한국경제 단기 충격 불가피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면 금융시장·수출 악영향

그리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제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경제도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0.48포인트(2.4%) 급락한 2053.93을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17.25포인트(2.24%) 내린 752.01로 마감하며 이 같은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에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Grexit)까지 이어질 경우 유로존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받을 충격의 크기에 따라 한국경제가 받을 영향의 폭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국제 채권단의 채무협상에 대한 반대가 61.3%에 달하면서 그리스 사태는 당장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의 협상 결렬로 그리스가 오는 20일 만기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채무 35억 유로를 갚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가 자체 통화 체제로 복귀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국경제는 금융시장을 위주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유로존 경제에서 그리스의

경제 비중이 1.8%에 그치고 이미 시장이 충격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국가로 경제위기가 전이되어 유로존 성장률을 잠식하게 되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한국이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은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어 그렉시트로 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그렉시트로 가게 되면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내 금융시장과 수출 역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유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대비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그렉시트의 현실화 시 전문가들은 수출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와 그리스와의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0.1%에 불과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수출이나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처럼 주변국으로 위기가 파급되면 유럽 전체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유로존에 대한 수출 전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한전, 모잠비크서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전화사업 펼친다

한국전력이 6일 아프리카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개발청(FUNAE)과 마이크로그리드(MG)를 활용한 전화사업에서 상호협력하기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모잠비크 현지에서 MG를 활용한 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후속 사업 발굴도하기로 했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MG 기술을 해외 전화사업에 처음 적용하게 됐다.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전화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모잠비크 마하나니 지역에 50kW 태양광발전설비와 100kWh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구성된 MG를 올 11월까지 구축해 인근 50여가구와 학교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에 적합한 MG 사업모델을 발굴해 아프리카 전역의 전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MG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백~수십MW 용량의 소규모 전력망이다.

국내에서는 한전이 진도군 가사도에 MG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설비를 조성, 상용화에 성공했다.

/임동률기자 faxian@kwangju.co.kr



U대회 성공 기원 릴레이 스포츠 체험

지난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백화점 1층 정문에 마련된 '릴레이 스포츠 게임 체험존'에서 축구 게임 이벤트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야구와 축구, 양궁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벤트는 광주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야구와 축구, 양궁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국민 10명중 8명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동의"

중기중앙회 1000명 조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9%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매우 동의+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전문직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3%와 72.4%로 나타나 평균을 밑돌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88.1%가 제한을 지지한다고 답해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부들의 경우 78.0%가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영업시간이 제한돼 불편하다고 답변한 비율과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전체의 50.1%와 49.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도 자율적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하지 않을 것'(72.6%)이라고 답한 비율이 '협력할 것'(22.4%)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와 '소비자 편의' 가운데 어떤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1%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39.3%는 '소비자 편의'를 택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하나투어 업무협약 체결

여행스케치 적립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와 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행목적 테마형 상품인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적립금을 오는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광주은행과 하나투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적립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투어 여행상품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적립금이 가입하고 하나투어 지정대리점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고

객에게 결제금액의 3%를 적립 만기시 추가로 지급한다. 또, 광주은행 카드로 해당 여행상품 결제 및 해외 사용 시 이 용금액의 0.5%를 캐시백 해주며 적립 가입기간 중 환전 시 최대 70%까지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월 납입액 5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광주은행 전 지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이와 함께 적립 만기 전에 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감안,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도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

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생,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추천회원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간직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